

무용과 폭행 가해학생 정학 처분 받아

“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어”

폭행 및 일차려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무용학과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난달 30일 최종 결정됐다. 지난 4월 14일 낙산의 메아리에 자신들이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 의하면, 피해 학생들은 3월 24일 무용학과 MT 장소에서 한 선배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4월 12일과 13일에 각각 일차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려로 입은 화상과 멍 사진을 첨부해 많은 학생들의 침예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 게시글의 조회 수는 5월 4일을 기준으로 약 1만 4천 건에 이르렀다. 김호성(행정 06) 졸업생은 “교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까지 학교 폭력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 수준 또한 강화되었다. 반드시 처벌하

길 바란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무용학과와 한 3학년 학생이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을 나섰다. 그는 게시글에서 “후배들을 따로 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배들의 평소 수업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다. 다 같이 사위실 바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바다에 뜨거워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면 후배들만 화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그는 해당 게시글에 “당사자들 간에는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기로 했다. MT에서의 폭행은 집합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내용을 덧붙였고, 이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양립했다. 조호진(정보 3) 학생은 “그동안 한

쪽의 편파적인 의견만 듣고 심부름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양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홍승욱(경영 3) 학생은 “후배가 잘못을 하면 권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선배들이 먼저 나서서 그것을 끊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자신들 또한 겪었던 일이라고 해서 약성을 물려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교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징계위 조사 결과 무용학과 MT에서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두 차례의 집합에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집단적인 일차려가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 1

명은 무기정학을, 일차려를 가한 학생 13명은 유기정학 2주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보 처리된 학생은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으로, 대학원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게 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박준철(학생지원처) 처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위의 처분은 학교 규정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작은 폭력이라도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학과가 아닌 학교본부에서 처리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번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뿐 아니라 무용과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소재 모 대학의 폭행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며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후배들에게 단체로 구타를 행했던 모 대학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해당 학교 교수까지 학교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준철 처장은 “이번 사태의 경우 경기도 모 대학의 폭행사건에 비해 폭력의 수위가 비교적 낮았다. 피해학생이 게시한 상처 사진도 과장된 바가 없지는 않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jyong@hansung.ac.kr

삼 학 승

학생회비, 꼭 내야만 하나?

지난 2일 열린 제3차 학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는 자치비 필수납과 관련된 안건이 있었다. 이는 학교가 제안한 것으로, 학생회비를 비롯한 동문회비, 졸업앨범비, 세타비 등을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말고 학과 학생회비처럼 자율적으로 납입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대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은 대학 중 자치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학교는 우리학교 뿐이고, 서울 소재의 많은 대학들이 자치비를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2007년 당시 교과부가 각 학교에 학생회비 자율납부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을 밝히며 자치비 자율납부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치비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 번쯤의 문을 열어보았을 것이다. 졸업앨범비나 세타비처럼 애초에 회람하지 않는 행사 참가비를 올려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학생회비를 자율 납부하도록 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총학생회 같이 큰 기구가 전 교생을 상대로 차등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험기간 야식배부를 할 때 입금이 명부를 확인한다면, 학생회비로 진행되는 대동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산의 결산이 곧 해당기관의 권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생회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진행되는 사업의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고, 학생회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악순환은 학생회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학생회비 자율납부는 학교나 학생회가 아니라 회비 징수의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지영 편집국장

잉글리시 라운지, 부담가질 필요없어요

잉글리시 라운지가 인지도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미래관 앞에서 우리학교 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잉글리시 라운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잉글리시 라운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잉글리시 라운지를 알고 있다는 답변이 88.7% △잉글리시 라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11.3%로 잉글리시 라운지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잉글리시 라운지를 이용해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잉글리시 라운지를 이용해 봤다는 대답이 37.5% △잉글리시 라운지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는 대답이 60.5%로 인지도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역사 1) 학생은 ‘잉글리시 라운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지금껏 2-3번 정도 방문해 보았을 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잉글리시 라운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200명 정도이며, 아마도 시험기간이 가까워지면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종(영어영문 4) 학생은 ‘학생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잉글리시 라운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확인증을 제출하면,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의 보너스 점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 담당 선생님이 잉글리시 라운지에 학생들을 데려와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공부에 잉글리시 라운지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한 학생 중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78.6%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21.4%로 나타났다. 향후 잉글리시 라운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임명을 요청한 한 학생(산공 1)은 이 점에 대해 ‘잉글리시 라운

지가 영어실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지만 라운지 내에서 영어만 써야 되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막상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현종 학생은 ‘오직 영어만 써야 된다는 규칙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잉글리시 라운지에 오면 먼저 다가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등 부담 없이 잉글리시 라운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잉글리시 라운지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갖지 않고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영어작문 같은 경우 15분 정도면 첨삭 받을 수 있다. 짧은 시간임에도 있지만 자주 영어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어학실력이 좋아져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연범 기자 jounkim@hansung.ac.kr

제7회 한성교내 영어스피치대회 열려

오는 24일 영자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7회 한성교내 영어스피치대회가 열렸다. 현재육영문 3 영자신문사 편집국장 장은 “영어스피치대회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자신의 영어능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며 이번 대회의 기획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유형은 영어 사용국 1년 미만 거주 경험자 및 무경험자가 지원하는 A유형과 영어 사용국 1년 이상 거주 경험자가 지원하는 B유형으로 나뉜다.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도 참가 가능하며, 주제는 자유주제이다. 분량은 한글파일 기준 A4 2장(글자크기: 10, 줄 간격: 16)이다. 주의할 점은 타 영어 스피치대회 참가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우수상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수상에게는 20만원이 주어진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교수 2명이고, 영어유창성과 정확도, 발표 태도, 원고의 창의성, 청중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다. 제10기 WEST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오는 15일 17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진행되는 제10기 한·미 대학생 연수취임(WEST)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취업·창업지원팀으로 반드시 방문접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과부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연수 및 인턴취업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해외 어학연수(4~5개월) 및 인턴쉽(3~12개월)과 견학(1개월)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종 18개월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 우리학교 지원자는 총 9명이었고, 그 중 2명이 WEST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gsi.go.kr) 및 교내 홈페이지 취업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학생회소식


- 졸업준비위원회**
• 7일~11일 앨범촬영 (우천시 변경되는 날짜는 추후공지)
- 학생복지위원회**
• 10일 오후 2시 청의관 앞 시네마데이 당첨자 공개추첨
- 인문대학생회**
• 7일~9일 인대 체전
- 예술대학생회**
• 9일~11일 프리마켓
- 공과대학생회**
• 14일~16일 공대 체전
- 18일 월드컵 쇼 관람**

동정란

김창홍(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의 감수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4월 26일에 서예한글분야 전체작품을 단독 감수하였다. **이재문(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 이 교수는 2012년 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 사업에 “기능성 게임에 적합한 감정을 가진 다중 그룹 군중 시뮬레이션 연구” 과제가 선정되어, 2015년까지 3년간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노광현(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노 교수가 지도하는 IIS-Hansung팀(산업경영공학과 이미지, 진태우, 김민지, 박해린)은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사)IT여성기업인협회에서 주관하는 IT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2012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 본선에 진출하였고, 2012년 10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국 45개팀과 경쟁한다.

사 령

면	수습기자 이진수(무역 1)	수습기자 김재현(산공 1)
---	----------------	----------------



제6회 사진공모전

- 기간**: 4월 30일(월) ~ 5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학부, 대학원, 교수 및 직원)
- 주제**: 자유(주제의 제약이 없음)
- 제출형식**: 8x10 크기로 인화해 제출
- 제출장소**: 학생회관 제 1별관(기업은행 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 발표**: 한성대신문 464호(6월 4일 발행)
- 상금**: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40만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편집국장 010-3444-7358 / press@hansung.ac.kr

수업 듣지 마세요 파업에 양보하세요

취업난, 스펙이 부족한 대학생 탓?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소재 대학의 몇몇 학생회와 부산·경주지역 Occupy 대학생운동본부 비롯한 60여개 단체가 '2012 메이데이 총파업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 행렬은 명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사에서 시작해 서촌사당 광장 앞까지 이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우리는 스펙 쌓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자'는 슬로건 아래 △학교수업 거부 △불성실한 수업 태도 △아르바이트 결근 △태업(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노동능력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 수단 등 총파업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Occupy 대학생운동본부가 파업을 선언한 장소는 직장인 아닌 학교였다. 여기에 대해 박정훈(Occupy 대학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너도나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요즘, 학업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에 더 가깝다. 우리는 연간 약 1천 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렇게 세상과 기업이 원하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반면, 기업은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대학생은 프리캐리어나트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프리캐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신조어로 파견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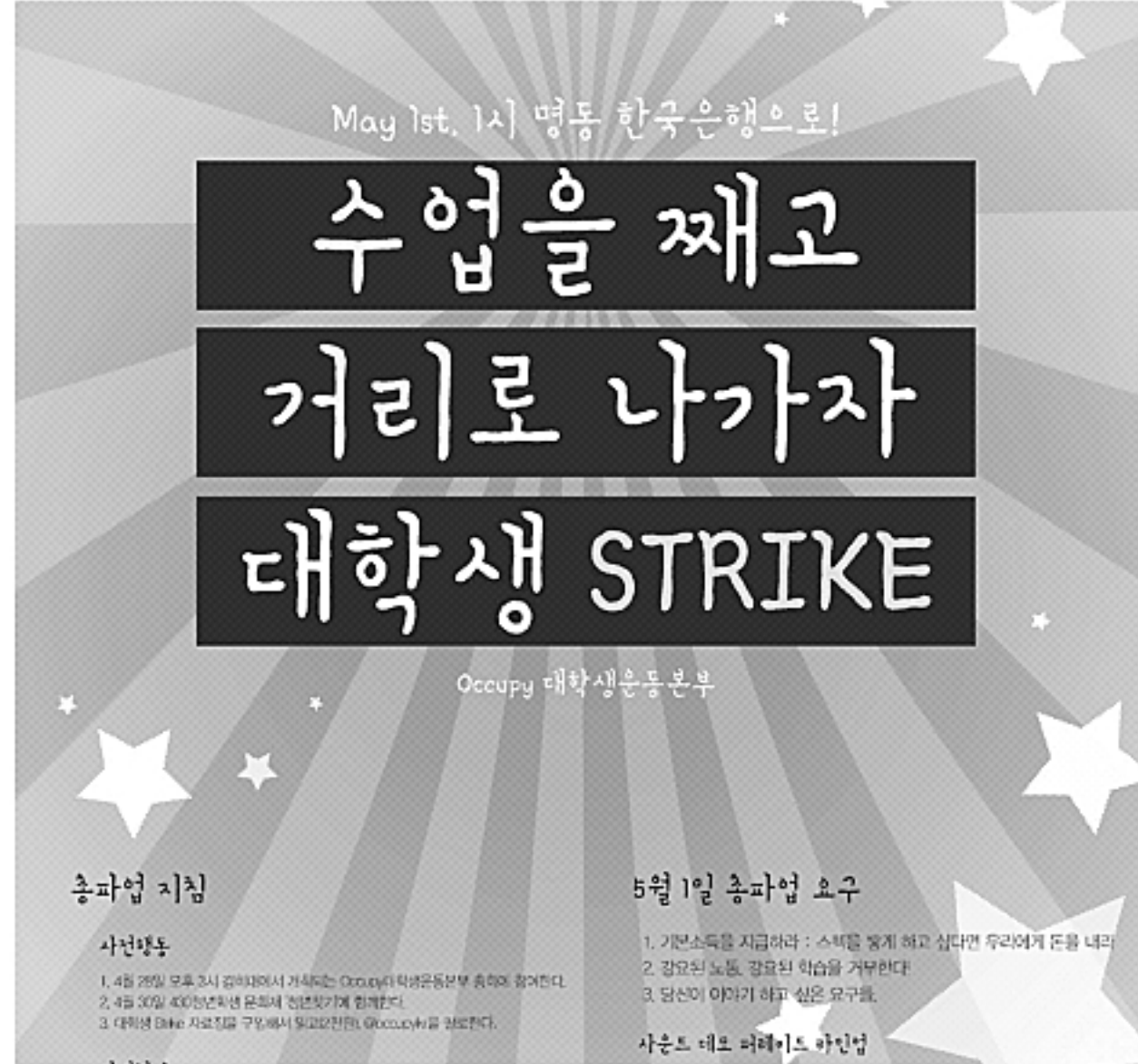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꿈꾸지만, 여건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태어난 순간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하며 보낸다.

이를 위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의 비용을 자신에게 투자한다. 그러나 진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위원장은 "사람들은 과열된 경쟁을 부추긴 사회와 기업에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력의 원인을 자신의 무능함 탓으로 돌린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을 선택한 중·고등학생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실사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잘' 사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취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결혼 비용, 내 집 장만, 자녀교육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른 정년퇴직으로 인해 노후를 준비할 기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은 '투자 대비 수익'이 좋지 않아도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기 위해 꾸준한 지출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사실 불합리한 이 사회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참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Occupy 대학생 운동본부는 '상위 1%'를 위한 참여를 철회하자'고 주장한다.

박정훈 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



간은 존재만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부터 부가까지 상품까지,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 덕분에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노동을 비롯한 학습 거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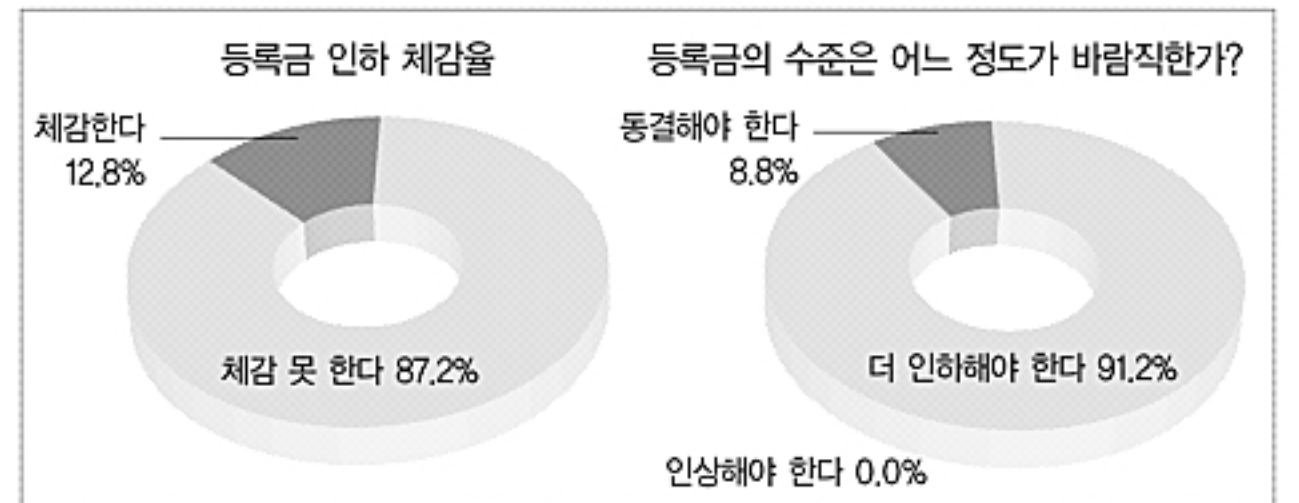
박 위원장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 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꿈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것을 이룰 수 없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현재의 대학생은 게을러질 필요가 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번 메이데이를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 청년실업, 해고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통계로 본 대학사회

등록금 낮췄지만 체감못해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인하된 등록금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된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대학생들조차 등록금 인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인하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등록금 금액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인하됐다고 답한 대학생들 중 87.2%가 '체감 못 한다. 인하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고 답했고, '체감한다. 등록금 인하로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학생은 12.8%에 그쳤다. 즉, 5명 중 4명은 인하폭이 낮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5% 미만이란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5% 이상~10% 미만인 32.1%, ▲10% 이상 인하했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들은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91.2%의 학생들이 '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은 8.8%로 소수였다. 반면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등록금이 어떻게 될 것 같나'는 질문에는 '동결될 것' (49.0%)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변화를 예상한 쪽에서는 '더 인하될 것' (27.7%)이라는 답변이 '더 인상될 것' (23.3%)이라는 답변보다 조금 더 많았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오수호(이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부 2) 학생은 "우리학교는 한번도 등록금 인하를 한 적이 없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공대라서 등록금이 460만원이나 된다.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는데 비해 우리학교의 등록금은 터무니없이 높다."고 얘기했다.

또한 그는 "등록금을 낸 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장학금을 잘 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도 비싸다. 계절학기가 1학점당 10만원이라 전공 두 과목만 들어도 60만원이다."라고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최원준(인천대 정보통신학과 2) 학생은 "우리학교의 재정은 좋지 않은 상태다. 우리 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서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학교 재정 상태 때문이라고 학생회가 밝혔다"며 "우리학교는 국립대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등록금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향후 5년간 등록금이 동결만 되도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타대학 엿보기-고려대 청춘카드

고대 학생이라면 일단 할인!



▲고려대 청춘카드의 앞·뒤 모습

고려대에는 재학생과 휴학생에게만 발급해주는 멤버십 카드가 있다. 일반적인 멤버십카드와 달리 고려대의 '청춘카드'는 인근 상점을 이용할 때, 학생증과 함께 제시하면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카드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춘카드는, 총학생회실에서 찾아가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식당, 술집, 대형할인마트, 안경원, 극장 등 다양한 업종의 33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폭은 각각 다르지만 최소 10%부터 최대 51%까지 대학생들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황순영(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기획국) 국장은 "무관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올해 청춘카드는 역대 멤버십 카드 중 가맹점 수도 가장 많고 할인 폭도 가장 크다. 2008년 당시 인근의 영화관에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600~700원 밖

에 할인이 되지 않았던 반면, 현재는 2천 원 을 할인해준다. 또한 중복할인도 가능하고 동반 1인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며 "생활환경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체들과 주로 제휴를 맺었다."고 소개했다.

황 국장의 말에 의하면, 청춘카드는 현재 까지 6천 500장이 발급되었으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휴 업체 소개와 상점 위치 지도까지 볼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도 제작해 많은 학생들의 이용을 돕고 있었다.

연세대 또한 멤버십 카드 ON을 모바일 카드를 형태로 제공 중에 있다. 황순영 국장은 청춘카드만의 특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진 멤버십 카드이지만 청춘카드가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ON'에 비해 청춘카드는 이용률, 가맹점 수, 할인율 등이 모든 면에서 더 높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청춘카드는 대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

는 비용인 등록금뿐 아니라 식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황 국장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청춘카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생활비의 약 20%정도를 절약하고 있다."며 "가끔 학교 커뮤니티에 타 업종에 비해 식당의 할인이 낮은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온다. 커피숍이나 노래방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식당은 이용을 많이 남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할인을 요구하기 힘들다. 대신 청춘카드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카드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이나 제휴를 맺은 업체는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 기획국은 청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근 학교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최고를 꿈꾸는 자의 선택!
육군간부

2012년 육군 대학 軍 장학생 모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육군모집에 대한 지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rmy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남성
- 학력 : 4년제 대학 학군협약이 되어있는 1, 2, 3학년 친권자의 동의와 재정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자

지원서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육군 인사사령부)

접수기간 : 2012. 3. 19 ~ 5. 18

선발절차

- 1차 : 필기평가(국사과목 필기평가 포함), 서류전형
- 2차(최종) :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장학금 수혜 기간 추가 복무
- ROTC 임관 시 : 6년 4개월
- 학사장교 임관 시 : 7년

대우 및 특전

- 대학 4년 등록금 전액 지급(입학금 포함)
- ROTC(지원시) 및 학사장교로 임관
- 국내 민간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육군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2-505-7144 / 042-550-7144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십시오)
- www.goarmy.mil.kr(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 1588-6953

NAVER 지식인 육군모집

교단에서



신용욱 ('한국의 탐구' 강사)

'안철수 현상' 과 비폭력 직접행동

이 학교 저 학교 떠돌아다니는 강사지만 고단한 장정도 없지는 않은데,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 기령 안철수 원장을 왜 지지하는지 물어보면 학생들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성공한 사업가인데 재벌처럼 불법적이고 몰염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경제적 성공은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재벌기문의 자식이 아니라도 그런 성공이 현 사회체제에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청년세대의 희망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않는다. 때로는 보수논객의 화법을 듣는 듯 느껴질 때도 있고,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학생들도 있어서 미국식 개인주의와 법리주의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젊은 세대일수록 기록이권의 논리에 저항하며 평등과 연대의 가치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하나의 논리적 견해라고 보기에는 씩씩한 뒷맛이 따른다. 대학 서열이 학생들의 경제적 지위를 고스란히 반영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가 옛말이 되었음도 실감하게 된다. 학벌이 사회 신분으로 낙인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세습되는 학벌신분사회의 현실이 젊은 세대의 안철수 원장 지지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

경력이 거의 없는 안철수 원장이 대중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순식간에 기존 정치권을 무력화했는데, '안철수 현상'이라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를 불이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안철수 현상'에는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현상'은 각종 촛불시위나 미국 월가를 점령하고자 하는 99% 빈곤한 사람들의 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시민들의 비폭력 직접행동이 선거 국면을 통해 표출된 형태일 뿐이다. 미국의 실권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과 혁명은 원자폭탄시대에 매우 위험하며,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고 한다. 그래서 전쟁·혁명과 의회를 통한 개혁의 중간적 위치의 장치로 비폭력 직접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현상 유지 상태를 뒤흔들어 놓고,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 안주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분노와 상처를 표현해 주고, 불의를 폭로하고, 기존 모든 개혁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긴장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하여 권력자들을 압박해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는 일시적이며 선거 때만 대중의 의사를 대변할 뿐이어서, 권력의 외부에서 국가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 세계가 믿어 의심치 않는 정의·자유·복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젊은 세대의 안철수 원장 지지가 시민행동으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설|

대학의 존재감

한 때는 그랬다. 대학을 지성의 전당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대학이면 학생과 교수를 불문하고 당연히 지식인으로 여겨졌다. 그것이 고매하던 상아탑의 전설이었다. 지금의 대학은 무엇인가? 대학인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실례가 되는 세상이고, 인신이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지만 그래도 대학만큼은 어느 정도 지성의 일부는 간직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지성은 그저 알량한 공염불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면 과연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어서 옳은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식 대중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성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은 어쩌면 지성보다 지식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은 지성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해야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지성이란 웅이든 큰 나무처럼 그 쓰임이 없는 데서 생존하고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덕이다. 반면에 지식은 반드시 그 쓰임이 있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을 전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성의 전당이 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구나 요즘처럼 선을 이루려는 가치는 가벼운 반면, 지켜야 할 도리를 외면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곳은 발 디딜 틈 없는 시절에 대학의 지성은 더 존경받고 흠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을 좇아 대학의 지성마저도 자취를 찾기 힘든 다음에야 대학의 존재감은 세상의 놀이터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미 그 기능이 얼얼하고 얼얼한 데도, 오늘날과 같이 단순히 입신양명의 과정으로 전락한 데에는 세상이 이미 지성의 가치를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러나 대학의 존재감은 이미 허울 좋은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곧 지성은 하찮은 수식어만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대학 본연의 임무를 일깨울 수 있을까? 아마 현재로서는 무슨 처방을 내려도 어려울 듯 싶다. 세상에서 지성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데 어찌 대학이 홀로 지성을 외칠 수 있겠는가? 교수가 지성이 아니라 학생이 지성이 될 수 없고, 세상이 대학의 지성을 요구하는 바 없는데, 대학이 스스로 지성의 전당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번 기대는 해 볼 수 있겠다. 대저 지성은 인간이 학문을 밝게 닦으므로 이 세상에 흠뻑히 나타나야 하므로, 대학인의 누군가가 학문을 밝게 닦고 있는 순간까지 그 불빛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격정적인 물에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혼탁한 물이 계속 썩어가는 동안 희미한 지성의 불빛조차도 언젠가는 꺼질 수도 있음이여!

한 줄 댓글

'내가 참여하고 싶은 대동제 행사는?'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시험의 깊은 시름을 놓고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축제, 대동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은 무대, 부스행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Form for '내가 참여하고 싶은 대동제 행사는?' with fields for name, grade, and comments. Includes a 'Submit' button.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개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백한다, ○○○을...'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A4용지 절반 정도)
•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가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 02) 760-4186 편집국장 : 010-3444-7358

한성대신문사

Form for '가로세로' crossword puzzle with a grid and clues. Includes a '정답자 발표' section for winners.

2012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12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notice. Lists various graduate programs such as 1. 일반대학원(주간), 2. 특수대학원(야간), and 3. 국방과학대학원(석사). Includes application details like exam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현책방의 귀환,
<알라딘 중고서점>

일찍 방문하는 자가 좋은 책을 구하리라

저렴한 가격, 깔끔하게 분야별로 정리된 책들 보러 오세요

손 때 묻은 현책방이 뼈속까지 들어서 있고, 마른 나뭇잎 같은 오래된 책 내용이 나를 반길 것 같은 공간. 오랜 시대를 아우른 책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인 현책방이 변하고 있다. 작은 공간에서 나는 쿼퀴한 냄새, 보안 먼지를 덮어 쓴 책들이 방치되어 있을 것 같은 현책방을 상상했다면, 당신의 인식은 중고도서 '알라딘' 서점 방문과 동시에 달라질 것이다.

지난해 9월, 종로2가에 한 중고서점이 새롭게 들어섰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중고 책을 매매 했던 알라딘이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연 것이다. 옛 H나이트클럽 자리에 위치한 이 서점에서는 일반 대형서점과 동일하게 도서들이 시간 및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장도서 검색이 가능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과 절판본, 희귀본 등을 모아놓은 공간도 있어 그 매력을 한층 더 한다. 판매품목도 도서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CD, DVD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특히 '도서 매입 전용 카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평소 읽지 않는 책들을 되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중고도서를 구매 할 수 있다는 점이 알라딘 중고서점의 큰 장점이다. 기존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책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도서거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대해 알라딘 홍보점 서호연 점장은 "2008년부터 온라인으로 중고서점을 운영해왔다. 고객들의 중고도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점에서 오프라인 중고서점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며 "책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아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만날 또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은 신세계다. 게다가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도 남의 손을 탄 물건인지 가우동할 정도로 새 책들이 많다. 고객들은 보존상태가 좋은 책들에 즐겁고,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기쁘다. 하루 평균 2~3천여 권이 거래되는 이 곳에서는 출간년도, 책

보존상태, 판매량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책을 팔고자 하는 고객들의 경우 신간 베스트셀러는 현재 판매가의 50%, 그 외의 책들은 정가의 25%, 상태가 불량한 책의 경우는 정가의 20%까지 받고 책을 판매할 수 있다.

입소문을 듣고 처음 매장을 방문했다는 조세린(26)씨는 "생각보다 큰 매장규모에 놀랐다. 도서관 같은 분위기에 책 가격도 부담이 없어 어떤 책을 고를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오동연(37)씨는 "무엇보다도 도서를 신속하게 되팔고 다른 책을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많은 책을 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도서들로 바꾸기를 가득 채운 책을 고르던 현승태(47)씨는 "품질도서 등 원하는 책이 있을지 싶어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며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해서 좋지만 한가득 담다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진정으로 원하는 책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익명의 한 50대 여성은 "이 곳에는 내가 선호하는 고전 소설분야 책이 많아 지금도 책으로 바꾸기를 꼭 채웠다. 때

장분위기도 밝고 카운터에서 신속하게 책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호평했다.

그리고 이투리(22)씨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책의 상태를 모른 채 가격만 보고 구매 후 후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프라인 매장은 책 상태를 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호연 점장은 "기존의 현책방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밝고 깔끔한 매장분위기와 깨끗한 상태의 책, 그리고 판매도서들이 각 분야별로 진열되어 있어서 책을 찾기 쉽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며 "종이책이 인기가 없는 요즘, 도서교류가 활발해져 독서인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독서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가끔은 중고서점에 들려 원하는 책을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밀려오는 추억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

문화부 press@hansung.ac.kr

야구, 어디까지 응원해봤니?

프로야구에서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응원문화이다.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한 이래로, 각 구단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로 응원가를 만들었고, 저마다 특색있는 응원문화를 만들어왔다. 응원문화가 잘 발달되어있는 대표적인 구단으로는 롯데 자이언츠, SK 와이번스, KIA 타이거즈, LG 트윈스가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대표적 응원가 '부산 갈매기'는, 보통 야구경기 7회 이후에 불려진다. 롯데는 홈 어웨이 상관없이, 선수들 응원가를 비롯해 부산갈매기, 돛과와 오 부산항에 등의 응원가를 틀어준다. 또한 팬들은 신문지를 잘라 응원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틀린 야구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단이 나눠주는 쓰레기봉투로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그리고 파울 볼이나 홈런볼이 관중석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공을 양보하는 '야주라' 문화도 만들었다. 이는 아이들이 야구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야주라' 문화는 사직야구장에서 뿐 아니라 롯데경기가 진행되는 모든 야구장에서 볼 수 있다.

SK 와이번스의 응원가로는 '연안부두'가 있다. 인천에 연고지를 둔 SK 와이번스는 지역의 특색을 강조해, SK 선수들이 홈런을 치면 뱃고동 소리를 들려준다. 프라인 매장은 책 상태를 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호연 점장은 "기존의 현책방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밝고 깔끔한 매장분위기와 깨끗한 상태의 책, 그리고 판매도서들이 각 분야별로 진열되어 있어서 책을 찾기 쉽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며 "종이책이 인기가 없는 요즘, 도서교류가 활발해져 독서인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독서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가끔은 중고서점에 들려 원하는 책을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밀려오는 추억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

LG 트윈스는 '서울의 천가'를 대표적으로 응원가로 쓰고 있다. 특히 LG 트윈스는 다른 구단보다 선수 및 팀 응원가를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잘 알려진 팀 응원가로는 'LG 없이는 못살아'를 들 수 있다.

안양에 거주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 A씨(27)는 고향이 부산이라 롯데가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거의 잠실로 향한다. 그는 "롯데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구단이다. 2000년대 초반에 롯데가 최하위에 머물렀을 때도 나는 롯데를 응원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롯데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베어스 팬 B씨(25)는 "두산 베어스는 2001년 이후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나는 두산베어스가 '허슬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에 야구장을 찾는다."고 이야기했다.

야구장 이야기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치어리더이다. 각 구단에는 치어리더들이 존재한다. 예전의 치어리더는 응원가를 더 즐겁게 해주는 차원에서 울동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요즘 치어리더들은 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 팬들을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응원이 재밌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응원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허무하게 질 때면, 맥주캔이나 쓰레기를 경기장에 던져,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야구장에 난입하기까지 한다. 이런 행동은 응원객 뿐 아니라 선수들의 사기 또한 저하시켜, 경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한 야구팬이라면 보는 이도, 경기하는 이도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허슬두 :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허슬플레이와 두산베어스를 합쳐 이르는 말. 김현성 기자 1033111@hansung.ac.kr



사진이야기



도시 한복판의 어느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음악회가 있다. 이름처럼 어느 집안의 거실과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하우스콘서트". 연주자의 손소리까지 들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퍼져 나오는 그들의 음악은 황홀하고, 그 황홀경을 만드는 그들의 손은 아름답다. 황인호 (경영3)

◆ 취 지 ◆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 지정 주제 : < 장학, 취업 그리고 미래의 꿈 > ◆

1.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기
2. 성공적인 취업 달성을 위해 재학생과 대학당국이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효과적인 노력 방안을 제시하기
3. 스티브 잡스 연설문에 나타난 그의 세계관을 정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제시하기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에서 확인 후 반드시 숙지할 것

- ◆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 2012년 4월 30일(월) ~ 2012년 5월 15일(화)
 2. 본선 발표 : 2012년 5월 21일(월)
 3. 본선 대회 : 2012년 5월 23일(수) 미래관 DLC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 접수 방법
 1.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작성
 2. 출력문서 3부(페이지 당 2개 슬라이드 들어간 유인물로 출력)를 사고와 표현 연구실로 제출
 3. 프레젠테이션 원본 문서 파일을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로 제출
- ◆ 심사 기준

예심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1. 논리적 구성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효과적인 주제 전달	4. 슬라이드 구성 능력 등
본심	발표 능력 평가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4. 발표 전략
-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단과대학 구분 없음) - 상금 50만원
우수상	4명(단과대학별 1명) - 상금 각 20만원
가작	8명(단과대학별 2~3명) - 상금 각 10만원

※ 문 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2학년도 제6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